

홈 > 뉴스 > 사회복지 > 생활안전복지

은평구시설관리공단-신한은행, 업무협약 체결

사회적 약자 지원... ESG 사회서비스 사업 활성화 도모

2022년 11월 15일 (화) 10:27:30

우미자 ✉ seoulbokjinews@hanmail.net



▲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신한은행과 지역사회 발전을 증진하고 관내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

[서울복지신문=우미자 기자] 은평구시설관리공단(이사장 이현찬)은 지난11일 공단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신한은행(부행장 박성현)과 지역사회 발전을 증진하고 은평구 내 사회적 약자 지원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협약식의 주제로는 ESG 사회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 역량공유를 위한 상호결연 선언이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△ESG 사회서비스 사업 발굴 및 지원(네트워크, 인력자원 등) △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 사회공헌 활동 지원 △기타 은평구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연계 추진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이다.

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증진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노인 이용시설 환경개선, 물품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.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으로 이달16일부터 19일까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공

공임대 사립경로당 대상 환경개선, 방역소독, 물품(가전제품 등)을 지원하기로 했다.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신한은행과 지속적으로 연계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할 예정이다.

박성현 신한은행 부행장은 “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공동협업을 통해 양 기관 역량을 공유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할 수 있게 됐다”고 말했다.

윤주희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장은 “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서비스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”고 밝혔다.

이현찬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“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해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하며 은평구 내 취약계층들을 비롯한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ESG사회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다”면서 “앞으로도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가겠다”고 했다.

© 서울복지신문(<http://www.swnews.kr>)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

 인쇄하기  창닫기